DOI: 10.21850/kge.2020.39..165
『**문법 교육**』 제39호(2020.8.), 한국문법교육학회

반복 구문 ‘V-느라고/노라고 V’에 대한 고찰*

진관초**

차례

1. 서론
2. 선행 연구 검토
3. ‘V-느라고/노라고 V’의 구문・통사적 특징
4. ‘V-느라고/노라고 V’의 의미적 특징
5. 결론

1. 서론

이 글은 연결어미 ‘-느라고/노라고’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같은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이룬 반복 구문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---

*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(한국학진흥사업단)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(AKS-2015-OLU-2250002). 이 논문은 한국문법교육학회 제32차 국제학술대회(2020.05.30.)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・보완한 것이다.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,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의 꼼꼼하고 사려 깊은 논평 덕분에 많은 부분을 보강할 수 있었다.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.
** 대만 정치대학교 교수

먼저 연결어미 '-느라고'에 관한 예문은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.

(1) 가.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.
나. 회사에 가느라고 택시를 잡아 탔다.
다. 고장난 엔진을 고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.
라. A: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?
B: 배우느라고 배우는데도 늘지 않아 걱정이에요.

(1가)의 '-느라고'는 [이유], [원인]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'-어서', '-으니까' 등 인과 관계 연결어미와 함께 분류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. (1나)는 '-기 위해'로 교체 가능하므로 [목적] 또는 [의도]의 의미로 해석된 예이며, (1다)는 선후행절의 사건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[동시]의 의미를 지닌 예로 선행 연구에서도 두루 제시한 바 있다. 그러나 (1라)와 같은 예는 [목적] 또는 [의도]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행절이 항상 동일한 용언의 어간이 반복하여 사용된다는 점과 '-는데' 등 [대조]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같이 사용되어 비의도된, 부정적인 사건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 여러 면에서 (1가), (1나), (1다)와 함께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. (1라)와 같은 쓰임은 종래 '-느라고'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한국어 교육 문법서나 교재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은 (1가)~(1다)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.

물론 (1라)에서 동일한 어간이 사용된 'V-느라고 V' 구성에 대해서 《한글맞춤법》에서는 'V-노라고 V'가 정확한 표기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'V-느라고 V' 구성의 용례가 좀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.[1)]

1) 이러한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초기 발표문과 1차 심사 투고문에서 'V-느라고 V'만 표기한 것에 대해 토론자 및 심사위원 선생님으로부터 'V-노라고 V'의 존재도 고려해야 한다거나 'V-느라고 V'의 '-느라고'는 '-느라고'와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어 비교가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. 후술하겠지만 기존 연구에서 '-느라고'가 '-노라고'에서 왔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데 설령 애초에